

N의 상상



세계관

2014년 서울, 사람들의 상상속에만 존재하던 존재들이 곳곳에 등장하여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에 대응하여 한국의 군대가 출동했지만 속도만 늦출 뿐 현실의 무기는 통하지 않는 듯이 생체기 하나 줄 수 없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알 수 없는 힘을 얻은 주인공은 하나하나 저지하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할 때 마다 근본적인 원인의 증거를 찾게 된다. 원인의 발자취를 따라 현상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캐릭터 시나리오

2014년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 공부에 관심은 전혀 없는 듯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다. 선생님은 이 풍경이 익숙한 듯이 학생을 깨우지 않고 수업을 진행한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 학생은 친구들과 떠들다가 급식을 제일 늦게 먹고 온 뒤 조회시간에 내지 않은 핸드폰으로 몰래 애니메이션을 보고 주인공에 몰입을 한다.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선생님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여 핸드폰을 빼앗기게 된다. 시간이 지나 수업시간, 핸드폰을 빼앗긴 주인공은 창밖 운동장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빼앗기기 전 애니메이션 장면을 상상을 하며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하며 상상한다. 다음날 아침 게임을 하느라 늦잠을 잔 주인공은 지각을 면하기 위해 아침도 거르고 달려가는데, 평소처럼 달리기를 하면 지각은 확정이라고 생각되어 어제 봤던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따라 해보다가 능력을 각성하게 된다.